



사흘 후 부분 26 x 22.5 x 18.5 cm 철재배관, 철조망, 1995년

사흘 후

(After three days)



이용배 (국민대 교수)

서울대학교와 파리대학 팜테옹소르본에서 공부하였고 국민대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다. 국내외에서 16회 개인 전 133회의 단체전과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 공공미술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공부 모임인 <창조 창작 회복>과 <인문학과 성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원이다.

작품 <사흘 후>는 1995년에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작품은 죽음과 부활의 얼굴을 담은 두 개의 금속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둘의 명확한 시각적 대조를 이루기 위해 하나는 거칠고 날카롭고 지지분하게 또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명쾌하며 깨끗하게 다듬었다. 얼굴 각각의 가로, 세로, 높이는 오른쪽 죽음이 26 x 22.5 x 18.5 cm이고 부활이 26 x 18.5 x 18.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 모두 금속제 배관 중에 레듀사(reducer)와 캡(cap)을 맞댄 후 전기 용접으로 이어서 만들었다. 물이나 가스의 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배관 중에 우리가 흔히 파이프라고 부르는 곧게 뻗은 직관(直管) 외에도 레듀사는 양을 감소시킬 때, 캡은 흐름을 마감할 때 사용하는 것

으로 이 둘을 맞대면 마치 밥주발에 뚜껑이 덮인 것처럼 되어서 동일한 지름의 것을 만나게 하면 둥근 입체의 얼굴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배관은 둘 다 철재로 죽음 쪽은 아연 도금된 것을 다른 쪽은 도금이 안된 것을 썼다. 도금된 것은 얼굴 전체를 용도 폐기된 철재 용품처럼 표면이 굵히고 얼룩덜룩 색 바랜 효과를 바탕처럼 남기기에 적합하여 그 중간 위부터는 녹 처리를 하고 그 밖을 가시철과 철선이 겹쳐진 철조망으로 얼기설기 여러 겹 둘러쳤다. 비교적 밝은 부분은 아연 도금된 부분이고 검붉은 색은 도금을 제거한 철의 표면을 녹슬게 한 것인데 녹의 색이 피느낌으로 적절하리라 생각해서 화학약품으로 산화를 촉진시켜 효과를 만들었다. 부활 쪽은 레듀사와 캡을 용접한 후 그 이음매를 비롯해 얼굴의 모든 표



사흘 후 (After three days), 26 x 22.5 x 18.5 cm, 26 x 18.5 x 18.5cm, 철재배관, 철조망, 1995년

면을 마치 거울의 그것처럼 만들기 위해 연마 기계와 손사포로 다듬어서 두 얼굴의 질감, 색채 등의 대조가 일어나게 했다. 두 얼굴에 감정을 담아내는 이목구비를 완전히 생략해버렸다. 그나마 죽음에는 철조망, 녹 등이 있지만 부활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예측할 수 없도록 흔적을 없앤 대신 앞서 밝혔듯 재료의 금속적 특징을 이용해 표면에 사물이 어느 정도 비쳐질 수 있도록 다듬었다. 이 얼굴을 따로 두고 보면 이목구비가 생략되어서 얼굴이란 느낌보다는 용도가 모호한 어떤 물체 정도로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보다 표면의 거울 효과가 더 중요하다. 희미한 거울을 세심히 살펴보면 이 얼굴이 놓여있던 방안의 창문, 조명 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게다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서면 보는 이의 얼굴도 나타난다. 내가 들여다보면 내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는 그의 두 얼굴들을 통해 죄로 인한 죽음에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

활로 새 삶의 돌파구를 얻었음을 나타내고 싶었다.

작품을 의도대로 만들어놓고 제목을 붙이는 과정은 녹록하지 않다. 나에겐 제작에 들인 만큼 제목을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 작품을 위해 처음엔 ‘부활’ 혹은 ‘죽음과 부활’ 이것도 아니면 좀 더 설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등을 생각했다. 막상 정해 놓고 앞의 것들을 사용하려하니 마땅하단 생각이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누구든 신앙 고백이 있거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이 작품의 제목을 보고 혹은 제목 없이도 금방 담겨진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고 <사흘 후>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작품을 만들 당시 나는 삼십대였다. 십대 중반부터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십대를 거친 후 결국 작가로 사는 것이 나의 길이라 여겼던 터였고 더불어 그냥 예술가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며 예술



사후 후 부분 26 x 18.5 x 18.5cm, 칠재배관, 1995년

가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이 있었다. 작품 제목 붙이기는 이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예술 작품의 직설적인(?) 신앙고백으로 인해 '이 작품은 단지 종교적 이겠군'하며 재빨리 돌아서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많다. 나는 반듯이 이런 표현 방법이 필요하지만 이 순진한 방법이 모든 표현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접근법은 특히 종교에 부정적 선입관을 갖은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 자체가 지닌 이야기를 손쉽게 거부하게 하니 이를 효과적으로 풀어낼 방법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나는 현대미술을 위해서 보편적 관객도 감상할 수 있는 친절한 표현을 연마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얼굴의 작품을 위해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되어 통용되지 않는 보편적이며 친절한 제목을 만드는 일은 마치 무겁고 차가운

숫덩이들을 나긋나긋하게 달구고 두드리며 용접하여 원하는 예술적 형태로 바꾸는 어려움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어쩌면 거친 금속을 수없이 반복하여 사포로 갈아야만 사물이 비춰지는 거울 같은 표면을 얻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사실 나에게 제목 찾기로 대변되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로서 정체성 찾기의 어려움은 오십대 후반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나마 가까스로 알게 된 중간 답이 있다면 답 찾기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끝으로 보편적 관객을 위한 제목 붙이기의 '사후 후'가 처음 전시되었던 때의 인상적인 한 장면이 떠오른다. 낯선 관객 한 분이 갤러리에 들어와 작품들을 둘러보다 이 작품 앞에서 물끄러미 한동안 바라보더니 '벌췄하던 사람도 죽으면 사후 뒤에 저렇게 되고 말지'라고 말하며 허허 웃었다. 